「건설기술관리법」, 건설 공사 환경 관리비 계상 의무화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폐기물 처리 단가 고시 등 실효성 강화해야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제26 조의 5항을 신설, 건설 공사의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 동안「건기법」에서는 건설 공사의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제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환경 관리에 대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 규정에서는 발주자 및 건설업자 모두 건설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주자는 환경 훼손과 오염의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금액에 적정히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후속 조치로서 최근 입법 예고된「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건설 공사의 발주자나 설계용역업자 등은 계획 · 설계 단계에서 자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대 시설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경 친화적 건설 사업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설계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대형 공공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환경 친화적 설계 · 시공 지침을 제정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필수 시설은 비용 계상 의무화해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건설 현장 내의 환경 보전비에 대하여도 진일보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발주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비산 먼지, 오폐수 등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환경 보전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 보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환경 보전비의 계상이 미흡하여 건설 현장의 공해 방지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태 조사에 의하면, 실제 소요 비용의 1/3 수준만이 공사 원가에 계상되는 수준이다. 절반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는 환경 보전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환경 보전비를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환경 보전비가 누락되었거나 설계 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설 방음벽이나 세륜기 등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환경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의무화가 요구되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로는 세륜기, 살수 시설, 가설 방음막, 방진막(망), 쓰레기 슈트, 가설 오수 처리 시설, 폐기물 보관 시설, 오탁 방지막 등을 들 수 있다.

순공사비 기준 요율이 바람직

한편, 이번「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환경 보전비를 원가 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개략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환경 보전비를 계상하는 데 매우 편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경 보전비는 동일한 공사일지라도 현장 조건에 따라 그 소요 비용이 크게 달라진

자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부대 시설의 설계도서 반영 내용

- 생태 이동 통로, 어도, 측구, 덩굴, 동물 침입 방지막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부대 시설의 설치
- 동 · 식물의 서식 지역 이전, 표토 보존 등을 위한 비용
  - 계약 목적물을 시공함에 있어 골재 채취나 가시설물, 가설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 환경을 정비 · 복원하거나 대체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법면 녹화비
- 터널의 지하 수위 변동으로 인한 식생 검토 비용
- 단지 생태 보전 및 훼손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
- 건설 공사 설계 및 시공 기준 등에서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의 설치 비용

환경 보전비 계상 요율 기준(원가 계산이 곤란한 경우)

공종별	계상 요율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0.7% 이상
항만 · 댐 · 택지 개발 공사	0.5% 이상
플랜트, 상하수도, 지하철, 철도 공사, 도로 · 교량 · 터널 공사, 비주거용 건축 공사	0.3% 이상
공동 주택 신축 공사 및 기타 공사	0.2% 이상

다. 공사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을 가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설 방음벽이나 오탁 방지막 등 고가 혹은 대량의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원가 계산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대상 공사비의 정의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환경 보전비가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임을 감안할 때, 대상 공사비를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 단가 고시해야

현재 폐기물 처리비 계상 실태를 보면, 정부에서 공표한 계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립지 반입비만 계상되거나 혹은 수집 운반비만 계상되는 사례가 많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예 계상되지 않은 현장도 많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에는 위탁 처리를 기준하여 수집 운반비, 중간 처리비 및 중간 처리 후에 발생하는 잔여 폐기물의 최종 처분비를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는 공신력 있는 적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 등을 통하여 톤당 처리 단가를 정부에서 고시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재개발 현장과 같이 혼합 폐기물이 과다할 때에는 처리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소각 처리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건설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 현장 내에서 직접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건설 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및 관련 시방서, 표준품셈 등에 의거하여 건설 폐재의 분리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 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 민원에 대한 발주자 책임 규정도

건설 현장의 환경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 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 인근 주민의 민원과 연관된 보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환경 공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태 조사에 의하면, 건설 현장의 70% 이상에서 크고 작은 환경 관련 민원을 경험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환경 관련 민원이 점차 대형화 ·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비용을 발주자측이 아니라 건설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지하철이나 재건축 등 민원이 빈발하는 공사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환경 민원과 연관된 보상 비용을 공사 원가에 추가 계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민원 처리 비용은 건설 공사의 원가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다. 다만, 환경 관련 민원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주자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mschoi@cerik.re.kr

인터넷 여행 : www.ceg4u.com

건설엔지니어링그룹

실질적인 인터넷 속의 건설 기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건설 기술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수많은 건설 사이트의 흩어진 정보를 수집하여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로 만들어 디지털 정보를 건설 네티즌 개개인에게 즉시 전달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그룹을 소개하고자 한다.

건설엔지니어링그룹에서는 모든 건설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하여 건설 전문 서적에 대한 원문 서비스, 수년간 건설 현장과 산업 분야에 종사한 건설 기술자의 경험과 실무 지식을 제공하는 각종 분야별 자료실 제공, 건설 기술자 기능 향상을 위한 자격 정보와 기술사 문제 풀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자료 제공 및 기술자의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 자료 부분에서는 건설 관련 기술 및 논문, 매뉴얼을 서비스함으로써 지식 습득은 물론 업무 효율 극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Q&A/컨설팅 항목에는 각 주제별로 분류를 함으로써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무료 컨설팅도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SLOPILE'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소규모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문 건설 기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건설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 국산화를 시도함으로써 국내 기술력 향상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모든 건설 네티즌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광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4급기술원